



야인으로 돌아간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제주 동행 인터뷰

“與 의원들 ‘DJ이즘 신당’ 동의했었다”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표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40년 정치인생을 뒤로 하고 야인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진 22일 민주당사를 떠나 강연차 제주도를 방문한 한화갑 전 대표를 동행 취재했다.

강연을 마치고 이날 밤 10개 숙소의 신제주 모호텔에 돌아온 한 전 대표는 애써 밝은 얼굴로 “(대법원 판결이) 꼭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자와 새벽 1시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냈다.

한 전 대표는 우선 정치적 스승인 DJ에 대한 말부터 꺼냈다. 한 전 대표는 “당사를 떠나오면서 김 전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으나 치료중이어서 통화를 하지 못했고 공황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행여 무죄가 나올까 기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아쉽다’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함께 겪어왔는가’라며 위로했다”고 소개한 뒤 조만간 동료들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심경을 묻자 “시간이 가면 실감이 나기도 하겠지만 개의치 않는다”라며 “지난 72년부터 88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각종 정치규제에 묶인 적도 있었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경선 자금 재관과 관련해서도 “SK 자금을 내가 고백했지만 하이테크 하우스 자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이같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아 유감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DJ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많았다” 위로 호남의 첫번째 목표는 사람 키우는 일 민주당 대세 살피기 보단 대의 따라야

잠시 침묵하던 한 전 대표는 문득 생각이 난 듯 “전라도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한 전 대표는 “전라도 사람은 대통령 못한다고 한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해냈으며 많은 정부 요직을 전라도 사람들이 거처왔다”며 “이는 전라도 사람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호남의 첫번째 목표는 인재 양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를 묻자, 한 전 대표는 “지난 80년 광주시민이 폭

도로 몰리고 동료계 정치인들이 정치규제에 묶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또한, 지난 88년 사면복권이 안된지도 모르고 공천을 신청, 출마도 못하게 됐을 때와 17대 총선 이후 몰락한 민주당을 맡을 때는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로 얘기를 꺼내자 한 전 대표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의

힘을 길러 정계개편 과정에서 대등하게 협상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품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열린당에서 30~40명이 먼저 나와서 통합신당을 만들자고 하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전통이 이어질 것인지 우려된다. 대세보다는 대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여당 의원들과 정계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DJ이즘’으로 통치된다면 된다고 설득했으며 다수가 동의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DJ의 사상과 철학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 중

심의 정계개편에 나서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향후 진로와 관련 한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탈당 이후 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나도 앞으로 민주당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김효석 원내대표로부터 ‘당 일각에서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내가 섭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고인을 들었다는 한 전 대표는 “당내에서 이러한 잔폐만 생각하니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생기겠느냐”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과 정도를 걸어야 하며 비대위 구성 문제도 당내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자기 생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면 선이고 안들어주면 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문재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금까지의 정치행로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내가 출중해서 민주당을 이끈 것이 아니며 DJ의 적자라는 것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부끄럼질 않게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신인의 섬 소년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지지자들과 호남인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당직자회의에서 장상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어지러운 이합집산

정계개편 논의 과정 그룹별 경계 허물어져 개혁성향 민평련 중도파와 공동 서명운동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불붙으면서 계파간 이합집산과 계파내 분화 움직임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보수세력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느냐 하면 계파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역학구도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계파별·이념별 그룹핑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력지형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혁성향의 김근태(GT) 의장계인 민평련(민주평화연대)은 최근 전당대회 의제설정 문제를 놓고 중도·보수 성향인 희망21포럼, 국민의 길, 실사구시,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와 공동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도 친노(親盧) 세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는 서로 입장을 달리해 ‘화학적 결합’이 아닌 ‘일시적 동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평련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친노세력까지 끼이는 ‘분열 없는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반면 나머지 그룹은 친노세력 배제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T계와 함께 통합신당 단일대오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동영(DY) 의장계는 DY가 정치현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도와 참여자가 늘면서 내부 분화가 가속화된 인상이다. DY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박영선

민병두 의원은 광장모임이 주도한 중도파의 서명에 동참했다. 반면 DY계로 분류되고 있는 양형일 우윤근 전병헌 의원 등은 희망21포럼, 국민의 길을 통해 통합신당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DY계의 분화현상은 일단 386 운동권세대가 중심이 된 민평련에 비해 내부 결속력이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초 DY가 본격 세 규합에 나설 경우 어떤 양상을 펼 지 주목된다.

친노세력의 분화도 두드러진다. 참정연(참여정치연대) 소속인 김형주 이광철, 의정연(의정연구센터) 소속인 이광재 이화영 의원 등은 당 사수파로서 강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남권 친노파로 분류되는 김혁규 유원호 최철국 의원 등은 당 사수파가 아닌 중도파 서명에 참여해 대조를 이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상 대표 체제냐, 비대위냐

구심점 잃은 민주당 진로 놓고 힘겨루기

“장상 대표 체제냐, 비대위냐.”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이 급주중 지도체제 개편과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 당의 진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장상 대표가 당을 이끌고 나가면서 2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주장과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비대위를 구성해 정계개편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 장 대표 체제는 한 전 대표와 그와 가까운 원외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고, 비대위는 당내 ‘친(親) 고건파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확대간부회의, 대표단·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당 진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원내 다수가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며 대세론으로 장 대표를 압박한다는 구상이지만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으로 대표직 수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제 민주당 2

기가 시작됐다. 당헌·당규대로 가되 최대한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반면 ‘친 고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전대를 열어 당권경쟁을 하면 안된다. 집단지도체제인 비대위를 구성해 정계개편에 대처해 나가자는 게 맞다”며 “원내 의원 다수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비대위 체제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체제냐, 비대위냐’를 놓고 원·내외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도 향후 당 진로 논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STAR **맛있는 천우 전문점**
심형제가 직접 기본 **한우삼형제**

한우 전문점 천우를 사랑한 노백과 창립자로 개조하여 선보인 최고품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 전문점 천우를 사랑한 노백과 창립자로 개조하여 선보인 최고품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 전문점 천우를 사랑한 노백과 창립자로 개조하여 선보인 최고품질 한우고기입니다.

어떤 단맛에 원정 나요?
탄소 함유난방 바닥재 출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난방재, 이젠 탄소 함유난방 바닥재를 소개합니다.

탄소 함유난방 바닥재의 장점

- 단열성: 기존 바닥재에 비해 단열 효과가 우수하여 난방 효율을 높여줍니다.
- 친환경성: 탄소 함유난방 바닥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에 부담이 없습니다.

BlueStar

문의: TEL 522-0117